대행 스님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돼야 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마음으로…

문) 제가 선원에 인연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선원에서는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촛불재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는지요?

답) 이 촛불재라는 것은 모든 유의 법이나 무의 법에서 내가 형성되고 살아나갈 때에 컴컴했던 일을 다시금 내 깊은 마음으로 인해서 두뇌로 밝은 물리 지혜를 내기 위해서, 또 항상 뿌리가 깊은 밝음을 스스로서 밝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들고 켜고 하는 데에 방편이라고 하지마는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저쪽 나무를 찾고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어 소나무가 향나무를 찾으면서 "향나무여! 향나무여!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에너지를 좀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 봤던들 그 향나무에서 소나무로 에너지가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 나무의 뿌리만이 자기 나무를 위해서 올려보낼 수 있죠. 그런데 그 나무는 잎새 하나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그 뿌리에 매달려서 살면서도 뿌리를 무시한다 이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 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쏭달쏭하게 생각하고 못 믿어서 그렇죠. '뿌리만이 나무 전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못 믿어서요.

먼저 배웠고 나중 배웠고 이걸 떠나서, 진짜 물리가 터져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라면,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한다면, 둘이 아닌 도리에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바로 지름길이다 이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했던 말 되하고 했던 말 되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마디 듣거나, 물 한 모금 마시고 손 한 번 튕기는 걸 가지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되풀이하게 되죠.

왜 절에서 종을 울리는 줄 아십니까? 영혼들을 전부 불러서 종소리를 들려 줌으로써 '이 종소리를 듣고 영혼의 귀가 뜨이고 눈이 뜨여서 이 도리의 섭류를, 이 세상만사 돌아가는 섭류를 알아라. 네가 이거를 알아야 영원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하는 소립니다, 그게. 그러니 이 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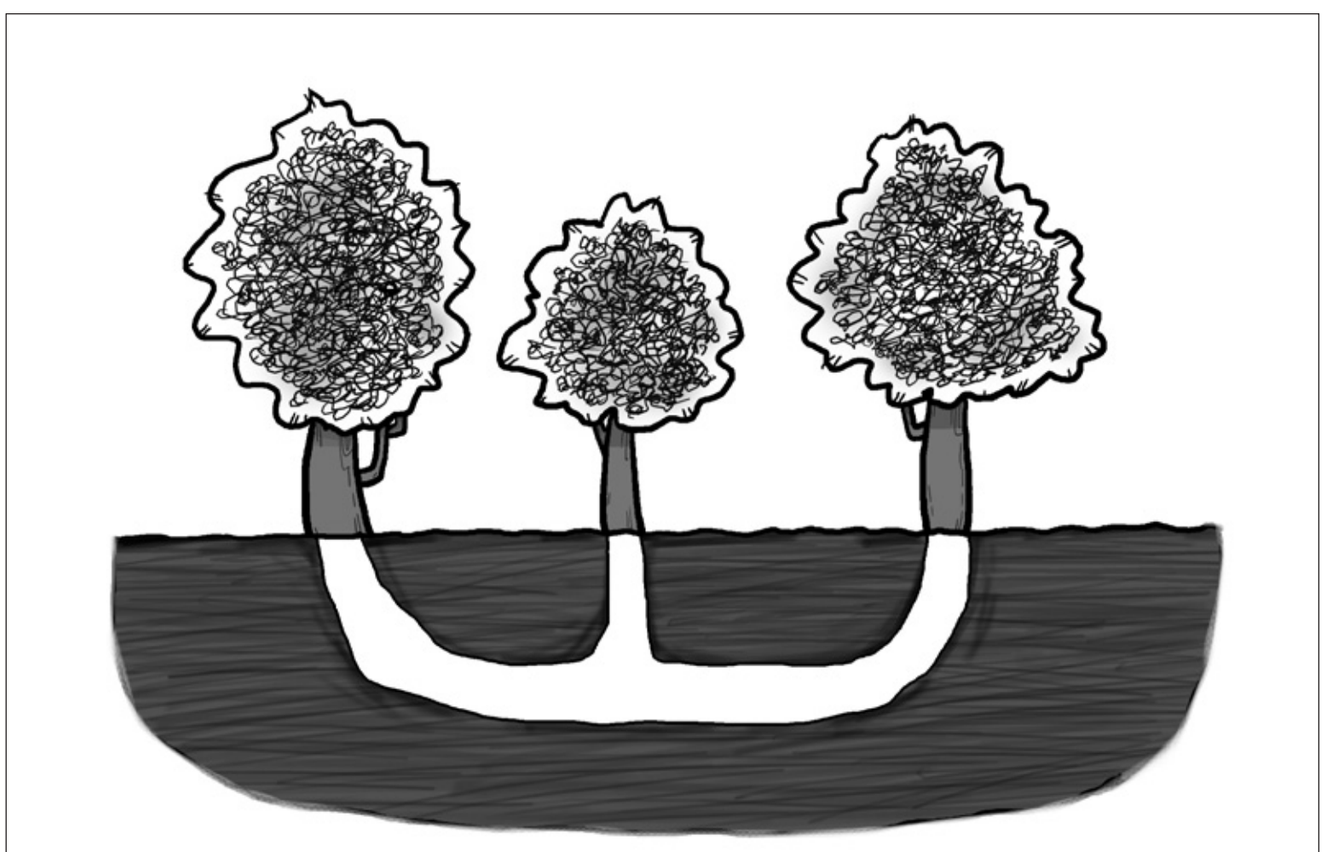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예전에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아이구! 그거 정말 그럴까? 에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아예 믿질 않았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 못난 뿌리만이 못난 나무를 위해서 모든 거를 100% 다 해 주겠지. 우리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내 부모이듯이.' 그러면서 지극하게 믿고, 부모의 제삿날인데도 차릴 게 없으니까 그저 보리죽을 쑤어서 죽 한 그릇을 부뚜막에 놓고, 물 한 그릇 떠 놓고, 향 한 개비 사르고 제사를 지내면서, '아버지 뿌리, 엄마 뿌리, 내 뿌리 이 세 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닌 한 뿌리니까 한자리를 하소서. 그러면 시장했던 모든 것이 한 떡으로 화해서 바로 양식이 되리다.' 하고 이렇게 그 부모를 위해서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가난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친구가 별안간에 찾아와서 마름을 주더랍니다, 일 좀 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어디로 이사를 가는데 다 맡기고 가더랍니다. 그럭하다 보니까 아주 잘살게 됐더랍니다. 그 나중 얘기는 생략하고요. 그랬는데 그 못 믿은 사람,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못 믿고, 그렇게 한 거를 아예 못 믿고 그런 사람은 못 믿는 것만큼 그렇게 살더랍니다. 즉 말하자면, 나무로 친다면 잎새가 단풍이 들면 떨어지듯이, 뿌리는 영원하지만 그 잎새는 그냥 떨어지고 없어지더랍니다.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사람은 가지가 돼서 추운 겨울에 발발 떨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느라 고생이 많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 자체가 살아나가는 데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똑같이 중병이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완쾌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완쾌가 못 돼요. 그게 누구의 탓입니까? 제삼자가 대신 밥을 먹어서 남을 진짜로 배가 부르게 해 줄 수는 없는 것! 한 마음으로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같이 거들어 주는 건 모르지만, 자기가 벗어나려면 자기가 자기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자기 뿌리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건 떼려야 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태양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태양이 광대무변하게 비춰 준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티끌 같은, 한 개의 촛불 같은, 그런 조그마한 한 티끌의 불씨 자체보다는 못하다는 얘깁니다. 인간의 마음은 온 누리를 태양보다도 더 깊고 무변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땅속이나 물속이나 어디 아니 미치는 데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태양의 근본도 바로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우주의 근본이 전체 한데 합쳐서 한 마음의 근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여러분의 참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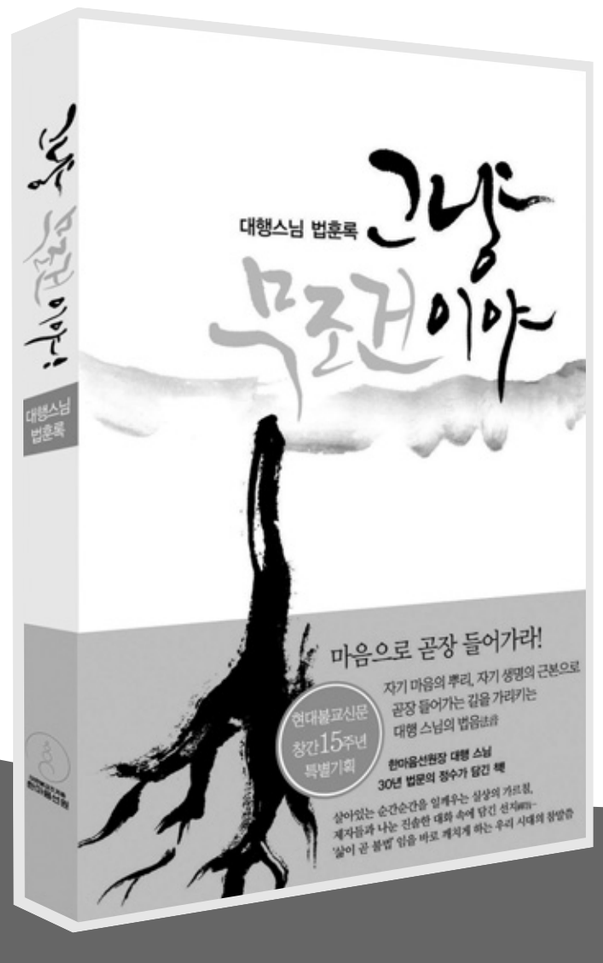
어째서 선업을 쌓으라 하시는지요

문) 진리에는 선도 악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어째서 선업을 쌓으라 하시는지요?

답)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유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선업을 쌓는 것도 자유고 악업을 쌓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될 수 있으면 선업을 쌓고 악업을 쌓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악업을 쌓으면 대대로 악업이 내 앞에 올 것이고, 선업을 쌓으면 대대로 선업이 올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어떤 생명이든 어떤 물질이든 다 끼리끼리 놓여 있습니다. 끼리끼리 삽니다. 그러니까 악업을 지은 사람은 악연을 가진 사람들하고 모이게 돼 있지요, 그건 자동적입니다. 누가 가라 오라 해서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탁탁 밀고 나가야

☞ 25면에서 계속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나물은 나물대로 놓여 있고, 사과는 사과대로 놓여 있고, 그것도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또 나누어 놓기도 하고, 깡통은 깡통대로 놓여 있고 무쇠는 무쇠대로 놓여 있고…. 이거를 가만히, 병풍 둘러치듯 한 이 세상만사를 한번 둘러보면, 인간의 차원도 어떠한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살라고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악으로 끌고 가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서 잘 이끌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마음을 내야 알아듣고 즉, 마음으로부터 두뇌를 통해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돼서 움죽거려 준다는 거,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하나 이 업식이 바뀌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속의 이 모든 의식들이 바로 화해서 바뀌집니다. 화한다는 건 바뀌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살의 마음으로 바뀌진다는 얘깁니다.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모두 거기 놔라 하는 것은 내 착한 마음으로 바뀌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과거에 업을 지은 대로 자꾸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근본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과거의 모든 거를 네가 한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가지고 갈 수가 있어. 네 몸뚱이, 네가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가 있어.' 하는 겁니다. 모두 '할 수 있어.' 지 '해 주십사.' 가 아닙니다. 그럭한다면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생각 하나하나가, 한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죽고 사는 것도 없어집니다. 육신이야 죽고 산다 하지만 마음이야 어찌 온 것이 있고 갈 것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이 움죽거려지고, 마음으로부터 이 지구가 돌아가고, 마음으로부터 일체 만법이 다 형성되고 돌아간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현실의 문제를 대처해 나가려면…

문) 지금 정치적으로도 불신이 팽배해 있고 사회적으로도 구제역이 전국의 낙농 농가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보면서 아무리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 해 나가는 불자라지만 단지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한생각 내던져서 대처해 나가야 할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지금은 싸움이 없으면서도 실은 어떠한 위기에서 싸움을 해 나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에 생활이나 몸에 대해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을 해 나가려면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이 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널리 세계를 보고, 우주적으로도 지금 앉은 방석을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화병에 꽃을 꽂아서 향기를 맡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생활이 잘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조화가 잘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이 생명 저 생명이, 이 나라 저 나라가 둘이 아니지마는 둘이 아니면서도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너와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 남자가 없으면서도 여자 남자가 뚜렷하게 있어 여자 할 일은 여자가 하고, 남자 할 일은 남자가 하듯이 그렇게 뚜렷한 것입니다. 모습 모습은 다 각각이나 둘이 아니게 조화를 이루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부터 알아야 그야말로 한생각을 내도 지혜롭고 넓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부터 알아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이 공했다. 그러니까 공한 내 참나를 그냥 무조건 믿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한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우리 국민이 이거는 안 되겠다 할 때는 무조건 국민을 위해서, 대인을 위해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회사원이라 할지라도 그렇고 공장을 한다 무슨 장사를 한다 이런 경우도 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융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생각에. 한 사람만이라도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는 아주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한다면 이 나라는 바로 물질과학으로부터 정신과학으로, 마음으로 만법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스스로 좌절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못 믿어요. 여러분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중생이 생각하는 건데 이거 안되지.'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타인의 일이라도 말입니다. 공장을 처음 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때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한생각을 탁 내 줄 때 그 공장은 그대로 유지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생각을 내 주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우주를 다 덮고 우주를 싸고 아니 닿는 데 없이 닿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능력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바로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 **되는 거 안되는 거 다 근본에다 놓는다면,**
> **그리고 진실로 믿고 물러지 않는다면,**
> **바로 거기에서 홀연히**
> **자기 생명수의 근원이 스스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이건 안된다는데….' 이러거든요. 아니,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잘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주인공의 뜻은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자재한다면 그대로 법신 아닙니까?

그래서 법신은 '자(子)'로 치고 마음내기 이전은 '부(父)'로 쳤습니다. 마음을 내서 용(用)을 할 때는 부가 자로 하나가 돼 버리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한데 조화가 돼서 가만히 있으니까 부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항상 말을 하듯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自信)이 있다면 그것을 밀고 나가고 자신이 없다면 밀고 나가지 말아야 하겠죠. 이것이 자기 분수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처음에는 요기밖엔 못 디뎠는데 나중에는 저기까지 딛게 됐다 이겁니다, 지혜가 넓어져서. 그랬을 때 차츰차츰 뛰어야 되는 거지 이걸 한꺼번에 뛰려면 안되니까 살면서 체험을,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체험을 해 나가시라 이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을 해봐 가면서 탁탁 밀고 나가 보시라 이겁니다, 의심을 하지 말고. 그렇게 탁탁 밀고 나가다 보면 어떤 거는 자기에게 감촉이 온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감응이 와서 느껴진단 말입니다. 점점점점 아주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반면에 큰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밀치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마음의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

문) 삶은 고다, 고가 아니다 하는데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어리석은 중생에게 어떤 바람이나 걱정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 진정한 고통이라는 것은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고통이라는 것이 왜 있겠습니까? 단지 내가,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있으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욕망이 있고 착이 있고 욕심이 있는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지 만약에 내 생명까지도 다 팽개쳤다면 아무것도 붙을 게 없어요. 저 하늘이 지금 당장 무너져서 그냥 납작해진다 하더라도 "허허! 그래?" 그러고 웃을 거예요, 아마. "그래?" 그러고 웃게끔 될 수 있어야 그거를 떠받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진정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루속히 그저 콩싹이 콩씨를 알아서 영원토록 그 콩씨로 인해서 모두 먹고 콩씨가 되남고, 또 먹고 되남아도 영원하리라고, 끝간 데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느냐 그것이 제일 걱정이죠, 뭐. 그냥은요, 여러분이 걱정이 있다고 그러는 거, 나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뭔 걱정이 있을까? 지금 당장 그냥 밥을 굶는다 해도 '허어, 밥 굶게 하는 것도 너니까 알아서 해!' 그러고 달랑 나자빠지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기르고 계시지만 자식을 기르는 데도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말로 하고 모습으로 야단을 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이름해서 그 한 점의 마음에 다 전화통 돌리듯이 거기다 맡겨 놓고 '아, 내 한마음이 바로 저 애의 한마음이니 내 한마음이 이러한데 저 애의 한마음도 자기 육신을 끌고 길잡이가 돼서 잘 갈 수 있을 거다.' 라는 걸 진짜로 믿으면서 그대로 나와 같이, 내 맘과 같이 생각한다면 잘 갈 것을, 괜히 말로 욕하고 때리고 온통 야단을 벌이니까 집안만 혼란해지고 일은 일대로 제대로 안되고 가정은 파괴가 되고 언제나 상을 찌푸려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복은 들어오지 않고 공덕도 될 수 없고 이러니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한 가지뿐만 아닙니다. 업보니 인과니 유전이니 또는 우환이니 이러한 문제 등등, 또 병고니 팔자 운명이니 이런 거 모두 여러분이 지어서, 모든 게 지어서 오는 것이지 누가 갖다 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정신을 차려서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 그러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하고 안되는 일도 네가 알아서 하고 잘되는 일도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안되는 거 되는 거 다 거기다 놓는다면, 맡겨 놓고 진실로 믿는다면, 물러서지 않는다면 바로 거기에서는 홀연히 자기의 생명수의 근원이 스스로서 나올 겁니다.

자기가 자기 길잡이가 돼야지 남이 길잡이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초발심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는 길잡이, 그러고 내내 길잡이입니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있다, 둘이 있다, 또 육신이 꼭 와 줘야 된다, 가 줘야 된다 이런 모든 걸 떼십시오.

육신은 고달픈 거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마음의 그 불씨는 우주를 쓸어안고도 남음이 있는가 하면 다양하고 편리하게 달나라에 가려 해도 감이 없이, 오고 감도 없이 전체를 볼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조화를 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덕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안 국 불 교 대 학
201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전문교육과정
♦ 교육기간 : 1년
♦ 입 학 식 : 2011년 3월 6일 일요일
♦ 수업시간 : 수.목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
♦ 입학자격 :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전 형 료 : 120,000원 (원서비,입학금,교재비,사찰순례비 포함)
♦ 수 강 료 : 매달 50,000원
♦ 접수기간 : 2011년 1월 ~ 2011월 3월

학 과 과 정
♦ 교육기간 : 1년
♦ 입 학 식 : 2011년 3월 6일 일요일
♦ 수업시간 : 월.화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
♦ 입학자격 : 전문교육과정 이수자(타 불교대학 이수자 가능)
♦ 전 형 료 : 100,000원 (원서비,입학금,교재비,사찰순례비 포함)
♦ 수 강 료 : 매달 60,000원
♦ 접수기간 : 2011년 1월 ~ 2011월 3월

특별강좌
논어(한문강좌) / 정한스님 - 매주 수요일 오후2시~4시

안국불교대학 학장 무관
부산시 연제구 거제 1동 91-1
TEL 051)501-7554~5 / FAX 051)501-9333
www.안국불교대학.kr

청정 청풍골 참다슬기 농축액
"간"이 피로 하십니까?
예로부터 맑은 물에서 자란 참다슬기는 그 효능이
토종 웅담에 비길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동강청정원에서는 강원도 동강과 남한강 상류
지역에서만 채취한 구슬알 다슬기와 참 다슬기만으로
다슬기 기름과 다슬기 농축액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

▶다슬기 농축액 : 다슬기 10kg을 껍질까지 분쇄하여 마늘과 생강만을 넣고 가마솥에서 3일간 달여 10㎖ 60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다슬기 기름 : 다슬기만 15kg을 항아리에 넣고 불가마속에 5일간 껍질까지 녹여 내린 것으로 900㎖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냉장상태로 포장하여 택배 배송하고 있으며 후불제로 판매합니다.

문의 : 043)652-2121 동강청정원

바른정법.바른인연

부처님의 정법 (경전 및 조사어록)만을 고집하는 수행 납자입니다. 이제 새로운 터를 마련하여 대웅전(법당)을 건립하고저 하오니 불사에 동참할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재, 부적, 철학, 조류방생, 인등, 합격의 등, 사업성취등의 일체 기복을 사절하오며, 시한부 암환자나 희귀병자, 신병등의 환자분들과 **인간 방생의 인연을 짓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타 종교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서울에서의 도량에서 소리 소문없이 정법의 기도로서 지난 십 수년간 책을 내고도 남을 만한 많은 분들이 병석에서 일어나 각자 새 삶을 얻어 생활 터전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 언제든지 확인 가능함 -

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합니다.
(현재는 천일기도 및 동안거 백일기도중)

불.법.승. 정법.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대중일동
주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화 : 055)633-6555